



따뜻한 미소가 저절로~ 달콤한 로맨스 어떠세요?

영화 '좋아해줘'로 복귀한 최지우... 김주혁과 호흡

오랜만에 영화 '좋아해줘'로 스크린으로 복귀한 배우 최지우는 촬영 현장이 "너무 편하고 즐거웠다"고 했다. 그런 만큼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미소를 짓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좋아해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새로운 매체를 통해 각기 다른 세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최지우는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유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좋아해줘"에서 약간 허술해 보이는 것이 매력인 노처녀 스텀어디스 함주란 역으로 나와 오지랖이 넓은 노총각 셰프로 분한 김주혁과 연기호흡을 맞췄다.

그는 영화 촬영 기간 연기하는 것이 즐거웠고, 상대 배우 김주혁과의 호흡도 좋았고, 완성된 영화도 재미있었다고 했다.

'좋아해줘'는 지난해 7~10월 제작이 진행됐는데 최지우는 이 시기에 tvN 드라마 '두번째 스무살'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드라마에서 몸이 지친 상태로 촬영장에 갔어도 즐겁게 작업했다. 안 그랬다면 파김치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해줘'에는 최지우 커플 말고 이미연-유아인, 이숨-강하늘 등 모두 세 커플이 나온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연-유아인은 드라마를, 이숨-강하늘은 멜로를, 자기네 커플은 로맨틱 코미디를 담당했다고 한다.

실제 영화를 보면 유일하게 최지우-김주혁 커플만이 진지함 없이 마냥 웃긴다. 극중 최지우가 회식자리에서 막춤을 선보이면서 약간 '오버'를 하다가 응급실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코믹함이 절정에 다다른 장면이다. 최지우는 자신이 편하게 즐겁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을 상대 배우인 김주혁의 공으로 돌렸다.

그는 "현장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그런 회식장면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이는 주혁씨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둘 사이 재미있는 장면이 많은 만큼 애드립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단 애드립은 김주혁의 몫. 최지우는 "저는 애드립을 잘 못한다. 주혁씨가 대본에 있었던 것처럼, 워낙 자연스럽게 애드립을 해서 저는 리액션만 했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최지우는 '노처녀'로 나온다.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는 "사실인데요. 뭐"라며 "쿨"하게 반응했다.

그는 "그런 것 갖고 짜증 나고 그러지 않는다. 대학생 엄마 역할(두번째 스무살)도 했는데, 그런 것으로 에민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최지우가 이자벨 아자니아와 닮은 배우로 이름을 알린 것이 20여년 전이다. '겨울연가'로 한류 스타가 된 지도 10여년이나 됐다.

그는 로맨틱 코미디가 주는 연애에 대한 환상에 대해 "있을 나이가 아니죠"라고 손사래 쳤다. 그는 "20대 때, 30대 초반까지는 있었다. 흔하디 흔한 결혼에 대한 환상이 제일 컸다. 이제는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러 결혼과 관련해서는 "(생각이) 왔다갔다 한다. 조금해서, 누군가에 등 떠밀려서 하기는 싫다. 지금 좋은 이런 시간을 조금하게 보내기는 싫다"고 덧붙였다.

최지우는 "관객들이 달달하고 따뜻한 영화 한 편을 보시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며 "제가 기본 좋게 촬영했으니 보시는 분도 미소를 지으며 극장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인, 강하늘 덕 좀 봤으면 좋겠다"며 흥행에 대한 욕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연습뉴스

“인순이 66억 탈루·탈세했다”

가수 최성수 부인 고발... 인순이 측 “사실확인 후 입장 밝힐 것”

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가수 인순이(59·사진)가 세금을 탈루 또는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성수 부인 박모 씨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금 66억원을 탈루 및 탈세한 혐의로 인순이를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증빙 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 씨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며 “인순이 씨가 2008년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을 때 누락된 금액으로 당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당시 인순이는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국제성에 적법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누락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업소 등의 행사에 출연하는 연예인 다수가 국제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인순이 씨가 나와 2005년부터 금전 거래가 있었던 터라 나 역시 조사를 받아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측은 통화에서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최성수 씨 부인과 소송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흡심 내기를 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연습뉴스



MBC ‘몰카 배틀...’ 설 예능 시청률 1위

MBC TV ‘몰카 배틀 왕좌의 게임’이 방송 3사가 지난 9일까지 선보인 설특집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10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부터 방송된 ‘몰카 배틀 왕좌의 게임’은 전국 시청률 11%, 수도권 시청률 12.4%를 기록했다.

이경규, 노홍철, 이특이 몰래 카메라 대결을 펼친 이 프로그램은 ‘응답하라 1988’로 주가가 하늘을 찌르는 걸스데이의 헤리가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처음에는 이특의 몰래 카메라에 당하는 줄 알았던 헤리가 알고 보니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반전이 드러나 재미를 줬다.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명절의 전통적

인 강자로 역시 이날 방송된 MBC TV ‘아이돌 스타 육상 씨름 풋살 양궁 선수권 대회’(아육대)의 7.9%를 가볍게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6~9일 방송된 설특집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좋은 성적이다. 9일 선보인 특집 예능 중 시청률 2위는 SBS TV ‘판타스틱 듀오 내 손에 가수’로 8.4%를 기록했다. 이밖에 KBS 2TV ‘우리는 형제입니다’ 2부 4.9%, ‘머슬 킥 프로젝트’ 4.2%, MBC TV ‘인스타워즈’ 4.3%, SBS TV ‘나를 찾아줘’ 4.3%로 집계됐다.

한편, 6~9일 설특집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2위는 지난 8일 방송된 MBC TV ‘듀엣 가요제’로, 9.8%(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

연습뉴스

TV 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덕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별이 되어 빛나라)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재)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⑪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설 특집 다큐 (집밥, 미국에서 다시 데이다)(재) 50 세계인 스페셜	0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재)	00 TV 속의 TV	10 덕터 365 15 글로벌 문화유산 50 SBS 12 뉴스
⑫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엄마)(재)	45 덕터 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①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30 영접의 CEO들 스페셜	20 세상 발견 유레카
② 30 직언직설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안영 우리말(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③ 00 내 친구는 일곱살(재) 55 튠튼생활제(재)	05 후트스 일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짜이걸스 35 프리파라		00 3시 뉴스 브리핑
④ 00 캐드나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TV 유치원 3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05 일일특기회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구르기 탐구 생활
⑤ 3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바이클론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⑥ 00 내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덕터 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⑦ 00 개밥주는 남자(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⑧ 30 서민갑부(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끝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기회 (아름다운 당신)	00 SBS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⑨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⑩ 50 채널A 스포츠	00 코리아 지오그래픽 (귀향)	00 수목 드라마 (청사의 신 객주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한번 더 해피엔딩)	00 드라마 스페셜 (리베라 아들의 전쟁)
⑪ 00 아내가 뿔났다(재)	00 KBS 뉴스라인 40 넷드워크 특선 다큐 (일터혁명 - 실태와 만나다)	10 해피 투게더	05 위대한 유산 도시사이 시골살이	15 자기야
⑫ 40 부르던 겁니다 머슴아들(재)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ayat 유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0 MBC 다크프라이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6:10 세계의 눈 07:00 지파이티스(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로보카 폴리 08:00 덩동명 유치원 1 08:10 통통가족 08:15 그림을 그려요 08:20 덩동명 유치원 2 08:30 두디디콩 08:40 덩동명 유치원 눈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팽팡 09:40 달려주세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3:05 역사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사이먼 시즈3-왔다! 사춘기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곤 14:30 으랏차차 아이쿠
14:40 초등 4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마야의 모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5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팽팡(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덩동명 유치원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로보카 폴리(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 18:05 출동 슈퍼맘스 18:2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2 18:25 아영명명 귀여워	18:4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3 18:45 스쿨랜드-한자왕국 18:5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4 19:00 플루토 비밀결사대 19:30 EBS 뉴스 19:50 사선에서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실론의 전설, 스리랑카를 가다) 21:30 한국기행 (비다의 명장들)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치창조기 (한국에 산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1일(음 1월 4일 癸亥)

子	48년생 기저에 있던 실력까지 총동원하여 발휘하는 것이 이익이다. 60년생 투명하게 추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으리라. 72년생 막연하다면 의미가 없으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만 한다. 84년생 행운이 도사리고 있다. 행운의 숫자 : 04, 32	午	42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된다. 54년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다. 66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해 보도록 하자. 78년생 알잡이 뱀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76, 10
丑	49년생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괴로운 일이 보인다. 61년생 격에 맞아야만 쓸모 있게 되리라. 73년생 너무나 비속해서 진 위를 혼동하기 쉬운 것이니라. 85년생 다양하게 세분화되면서 체계가 서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8, 93	未	43년생 빈틈을 보여서는 아니 되므로 조곤을 날같이 살펴보자. 55년생 주저하지 말고 가져와야 버리는 것이 지혜롭다. 67년생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79년생 반복되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11, 71
寅	50년생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추이를 관망하자. 62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매듭지어 잘 것이다. 74년생 다양성의 확보는 무궁한 발전의 여지를 제공하리라. 86년생 살리는 적고 할 일은 많으니 수고스럽겠다. 행운의 숫자 : 25, 53	申	44년생 선택하기보다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56년생 부담이 따를지라도 차체에 보완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68년생 반드시 처음과 끝이 같아야만 한다. 80년생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마라. 행운의 숫자 : 81, 65
卯	51년생 열을 녹듯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라. 63년생 그냥 내버려 둬서 가장 나을 것이다. 75년생 한 가지를 처리하면서 서 많은 수확이 있다. 87년생 당래지가 활기를 띠면서 대폭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46	酉	45년생 통합하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57년생 종합적으로 자세한 점검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69년생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으나 마음 놓고 지내도 된다. 81년생 극진한 정성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행운의 숫자 : 39, 92
辰	40년생 절대적이라고 치부한다면 오산이다. 52년생 기저적 안목이 필요한 때이다. 64년생 부가 가치가 크다. 76년생 긴요한 문제에 분착할 수 있다. 88년생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54	戌	46년생 진귀한 기회이니 수용하자. 58년생 현혹된다면 순간적으로 오만할 소지가 있다. 70년생 재수불공을 올린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82년생 불만이라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1, 66
巳	41년생 기다리고 있으면 사라진다. 53년생 합리적인 추진이 불편을 해소해 주리라. 65년생 연결되어 있으니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77년생 절제하라. 89년생 기가 막혀서 아예 말도 나오지 않는 판도가 펼쳐 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2, 84	亥	47년생 구상에 그친다면 무의미하니 실제 적용을 해야 의미가 있다. 59년생 중랑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불편하기는 하나 흥사는 없고 그저 평강할 뿐이다. 83년생 노력의 쌓여서 성과가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24,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